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라살아라네타 대학은 마닐라 중심부랑 거리상으로는 가까우나 차가 많이 막혀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 학교는 신축 기숙사를 사용하여 깨끗했고 2명이서 살기에 충분했고 학교 바로 옆에 있어 등교하기에 좋다. 학교 전체 분위기는 활기차고 즐겁게 수업하는 분위기이다.</p>
수업	<p>수업은 대그룹 수업 3개, 소그룹 2개, 맨투맨 3개로 총 8교시로 이루어져 있다. 한 교시가 50분으로 되어있어 지루하지 않다.</p> <p>대그룹 수업은 토익스피킹, 리스닝, 미디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익스피킹은 토익스피킹 수업을 준비하는 수업이라 발음, 어조, 시험 스킬 등을 배운다. 리스닝 수업은 리스닝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들을 배웠다. 미디어 수업은 광고 만드는 것이 최종 과제인데, 광고에 사용되는 태그라인, 징글 등에 대해서 배운다. 내용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으나 학생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수업이다. 대그룹 수업들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해도 무방한 과목들이어서 수업 배치가 잘 된 것 같다.</p> <p>소그룹 수업은 책이 있으나 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업이다. 대그룹 학생들의 절반이 같은 소그룹이 된다.</p> <p>3개의 맨투맨 수업은 각각 writing, speaking1, speaking2 수업이 있는데. speaking1 에서는 발음과 단어수업을 하고 speaking2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수업이다. writing은 매주 에세이를 제출하기 전 피드백을 받고, 문법과 단어 수업을 한다.</p> <p>대그룹, 소그룹 선생님들은 대부분 경력이 있고 학생들을 잘 이끄는 반면, 맨투맨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수업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그룹, 소그룹도 함께 하시는 맨투맨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업은 좋지만, 맨투맨만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간을 때운다는 느낌이 강했다. 물론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p>

	수업들 중 가장 재밌는 시간은 대그룹이다. 대그룹, 소그룹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욱 재밌다. 대그룹 사람들과 마닐라 투어 등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Activity	나는 민도로 섬에 가는 activity만 참여했는데, 친구들이랑 놀기 좋은 곳이었다. 가셔도 수상 activity를 즐길 수 있고, 자유시간이 많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민도로 가는 길은 정말 멀다. 버스를 타고 3시간정도를 간 뒤 배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갔다. 1시간 거리라고 하지만 파도가 많이 쳐서 오래 걸렸다. 민도로 가는 배에서 배멀미 하는 사람도 많았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2-1월에 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시원한 시기였다. 낮에 나가면 햇빛이 강하긴 했지만 수업이 많아 더운 걸 느낄 시간이 없다. 학교와 기숙사 모두 냉방이 잘된다. 습하지도 않고, 한국 5월정도 날씨였다. 지내기에 문제 없었다.
안전	학교와 기숙사는 매우 안전하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시장이나 시내로 나가면 소지품을 잘 챙겨야하고, 우버나 그랩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안전하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2인 1실이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 기숙사 대체적으로는 좋았으나 방음이 너무 안된다. 그래서 드라이기 소리나 복도에서 말하는 소리에 잠에 깰 수 있다. 기숙사에서는 음주가 불가하고, 10시가 통금이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 저녁 대부분 학교식당에서 먹었다. 메뉴가 주기를 가지고 돌아 오지만 정말 맛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이 7시-8시로 정말 이르다. 특히 주말에 7시에 밥 먹는 건 무리이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기숙사에서 나와서 옆으로 20M정도 걸어가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다. 정말 가깝다. 학교와 기숙사의 위치는 정말 좋다. 하지만 시내로 나가려면 시간을 길게 잡고 나가야한다. 거리상으로는 짧지만 차가 매일 막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고 갔다 와야 한다. 길거리가 항상 주차장 같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350000	UBER비용, 식비, 기념품
합계	3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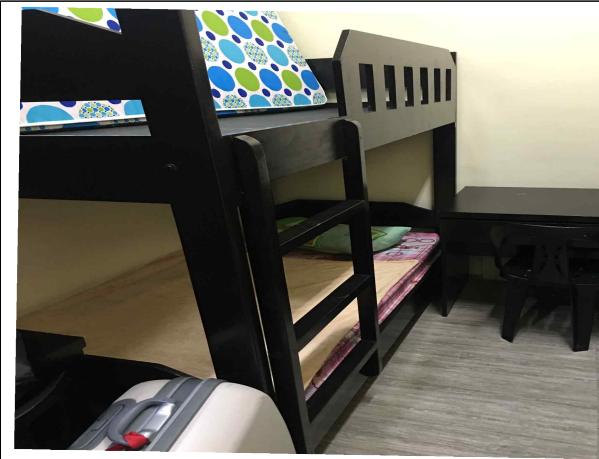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에어컨 때문에 긴 소매를 꼭 가져가야한다. 감기나 냉방병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
다. 감기약은 꼭 가져가는 게 좋다. 가면 왠지 몸이 자꾸 아픈 것 같다. 감기약이 소중해
진다. 특히 두통약.
우버 택시 어플 깔고 가는 게 좋다. 그랩 택시는 예약비용을 받기 때문에 우버가 더 싸
다. 가서 어플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변환 어댑터는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220V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돌아올 때 기념품 사고 짐이 늘어나니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게 좋다. 올 때 무게 재
고 많이 버렸다.
EOP라고 학교에서는 꼭 영어를 써야 한다. 한국어를 쓰면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한다. 수업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친목시간을 갖고 싶거나 에세이연습을 하
고 싶다면 추천..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4주 동안 필리핀에 있었는데 첫 주는 생필품 사고 자기소개 시간 갖고 적응 기간을 갖
는다. 그리고 둘 째, 셋 째 주에 수업을 하고 마지막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업을 안
나오고 풀어진단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사실 상 수업은 2주 정도만 하기 때
문에 정말 짧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늘 수는 없는 것 같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진다.
시험 주제 등으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영어는 꼭 극복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연수를 통해 실력 향상 기회보다는 나한테 맞
는 공부 방법을 찾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기회로 삼고 싶다. 대그룹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듣다보면 정말 재밌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토익 스피킹 수업이 있어서 솔직히 의외였다. 왜냐하면 여기 까지 와서 시험 준비를 하
고 싶지는 않았다. 정말 한국인을 위한 코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말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가치 있는 수업 같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나 갈 것이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해나 갈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



민도로 여행



마닐라 투어



대그룹



소그룹



학교 근처 시장